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뉴스일자 : 2026년03월25일 16시46분



[GBS방송 이명수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정찬조)는 3월 25일 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농업인을 초청해 농지은행사업 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고흥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공공임대용농지매입 등 청년농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찬조지사는 “미래농업의 핵심 동력인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기반을 다질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청년농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